

# 나는 '작은 사람' ... 지구촌 곳곳 누비며

김재령 국제구호활동가



김재령씨는 ... 1971년 강원도 태백 철암에서 출생했고 영남대 국문과에서 공부했다. 운동권 학생이던 그는 1996년~1998년 굶주리는 북한동포 생명 살리기 운동을 했으며 1999년 정토회에 입회했다. 2000년~2003년 정토회 산하 (사)좋은벗들에서 통일 교육 및 북한동포 돕기를 했다. 2003년 JTS에서 아프가니스탄 구호 활동을 거쳐 2003년~2012년 (사)JTS에서 인도 구호 및 마을개발 활동을 했다. 이는 국내 국제구호활동가 중 최장기 해외체류 기록이다. 귀국후 2년 동안 SNS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엮은 <나는 작은 사람>을 최근 출간했으며, 국제구호 활동을 위한 모임을 준비중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강원도에서 대교로 전학 온 가난하고 키 작은 소년은 덩치 큰 아이들한테 맞고 돈도 빼앗기면서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덩치 큰 애가 세상을 주도할까. 왜 잘 생긴 애들은 인기가 많은데 뚱뚱하고 못생긴 애들은 관심을 못 받고 외로울까. 잘생기든 못생기든, 크든 작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소년은 부처님도 그랬듯이 불공평한 세상의 모순을 타파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운동권에서 활동했고 대학을 중퇴하고는 좋은벗들서 북한동포돕기 활동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되면서 국제구호활동가가 되었다. 10년 넘게 해외에서 국제구호활동가로 살아온 아늑브라더 김재령 씨는 자신이 오랜 시간 해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작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별칭이기도 한 아늑은 '새로움'이라는 인도어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인도의 불가촉천민, 캄보디아의 소수 부족 등 그는 '작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다.

### 북한동포 돕기에서 국제구호까지

국제구호활동가 김재령 씨(44)가 최근 책 <나는 작은 사람>(마호)을 펴냈다. 최장기 해외 체류 국제구호 활동 기록을 가진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SNS에 올린 587일간의 글을 책으로 묶었다. 농부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는 왜 제 3세계 국가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

"대학시절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21세기진보학생연합에서 북한동포 돕기를 했어요. 중소도시를 돌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모금한 돈을 국제구호단체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정토회 JTS였어요. 당시 법륜 스님 강의도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냐? 사람들(북한 동포)이 다 죽고 난 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서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학비를 쓸만큼의 용기가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만큼 절실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김 씨는 당시 공납금을 반납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학을 그만두고 서서히 북한동포 돕기에 대한 생각은 약해져갔다. 당시 생명사상에 심취한 그는 농부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북한강 유역 유기농 농업 단지를 찾아가 배추를 키웠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는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배추 값 100원~200원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중생심을 보았던 것이다. 생명사상을 중요시 여겨 농사를 짓겠다는 그가 농사의 본질보다는 외부조건에 휘둘리니 스스로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연찮게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좋은벗들 관계자가 출연해 북한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었어요. 한동안 북한동포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해서 1999년 찾아가던 곳인 정토회예요. 저와 동료들 계획은 연변에 가서 농사 지어

북한으로 식량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게 여러 사정 상 여의치 않았어요. 저는 정토회 좋은벗들 간사를 하면서 통일교육 등으로 4년을 보냈죠. 그러니 남한에서 북한돕기를 한 셈이죠."

###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로

정토회 상근 자원활동가로 서초동 정토회당 생활을 시작한 그의 삶에도 서서히 변화가 왔다. 절에서 기도하고 자원봉사하고 불발을 배우니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불교도 인간의 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막연히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생구제의 원력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만나면서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좀더 명확한 관점이 섰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새 임무가 주어진다.

### 북한동포돕기로 시작해

아프간 인도 캄보디아 등

10여년 동안 국제구호 활동

학교짓기 등 진출축사에 참여

마을 주민들과 소통 통해 진행

15년간 매일 아침 기도 수행

세상 바라보는 시각 달라져

SNS에 올린 587일 활동 기록

<나는 작은 사람> 책으로 묶어

2003년 전장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 학교를 지어줄 자원활동가로 파견을 가게된 것이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운전, 영어, 건축경험.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JTS 측에서 저에게 실무자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아마도 북한동포를 돕겠다고 한 원력을 높이 사신 거 같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프가니스탄 일도 잘해낼 수 있을거라 믿어주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되면서 국제구호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아프가니스탄은 참혹했다. 탱크가 뒤집어져 있었고 곳곳이 지뢰밭이었으며 집들은 무너져 있었고 집집마다 가족을 잃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고아들이 넘쳐났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6.25전쟁 이후 우리의 모습이 이렇 것 같았어요. 특히 난민촌 아이들이 천막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손목이나 발목이 잘리고 제대로 먹지도 배우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전쟁은 어른들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통을 받는지 정말 슬프고 분통이 터졌어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니 저도 너무 행복했죠. 당시 탈레반들은 외국인들의 지원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탈레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이들과 노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총에 맞아 죽어도 탈레반을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정도의 구호활동을 마치고 그는 2004년 인도JTS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 불가촉천민 지역 동계소라리 곳곳에 유지원을 짓기 위해서였다.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사정상 JTS의 학교 공사는 중단되어 다른 NGO가 학교 건설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학교 건축을 시작한 것은 인도에서죠. 건축 분야에 전혀 생소했던 저였지만 현장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JTS는 학교 건물을 세울 때 단순히 건물을 지어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학교를 짓고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학교와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자는 의도다.

"처음 마을 주민들을 대했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였어요. 불가촉천민이라는 뉘어진을 수 없는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공허함이 느껴졌지요. 돈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신분도 낮고 능력이나 기술이 없으니 솔로 하루를 때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짝퉁인 일상과 과도한 목표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인도 불가촉천민 지역 아이들은 무기력한 것이 문제였다. 규제 없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떤 목표도 없는 삶이 인간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는 보았던 것이다.

"저희가 매년 15~16세 된 아이들을 고용해서 건축기술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하면 기술자가 되어 직업도 갖고 가정도 꾸리게 되죠. 삶의 목표가 생기면 아이들 눈빛도 살아나고 활력도 넘치고 또 희망을 꾸꾸는 표정이 돼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동안 그도 성장해 나갔다. 건축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 또한 책과 현장 경험을 통해 건축을 배웠고 이제는 설계도만 있으면 학교 한 채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생겼다.

### 회향, 공장 노동자 그리고 작가로

10여년 동안 JTS에서 일한 그는 어느날 회향을 결심한다. 사실 10년 넘게 일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한곳에서 일하다 보니 소위 '장판 때(?)'가 묻기 시작했다고 그는 표현한다.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바다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JTS 실무자는 무보시로 봉사하며 살기 때문에 돈은 없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모두 보장 되죠. 또 업무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냥 성실히 일만 하면 돼요.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 큰 자부심도 있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저

##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병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임

##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